

## 포스트휴먼을 통한 인간 정체성의 의미: 처칠의 『넘버』 연구

우 승 정  
(조선대학교)

Woo, Seungjeung. "The Meaning of Human Identity through Post-humans: The Study of *A Number* by Caryl Churchill."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9.4 (2023): 89-110. This study examines why human identity needs to be reconsidered and what need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other forms of life at the Post-human ages, by focusing on *A Number* by Caryl Churchill. *A Number* shows clones who have greater empathy and thinking ability than humans have. They also have an explicit self-esteem, but are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So important are the questions like "who is a real human?" and "whose identity belongs to them?" to understand humans and them. Churchill answers the questions by presenting them as Salter's 'being father' and 'doing father'. She also shows that 'being a father', which is Salter's desire, is only to be a Narcissistic fantasy which our scientific technology society dreams by copying the cells. Salter, as an origin of his biological son and his clones, asks for the respect of his authority but it gradually turns out that he is not worth it. Therefore, it emphasizes the new recognition of human subjectivity, focusing on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others and human beings. This study is about the beginning of post-humans' thinking that breaks down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other forms of life. It is also Churchill's hope of human conditions in the future and her answer to the problem of "natural" and "cultivation" emerging from the technology of human cloning. (Chosun University)

**Key Words:** post-human, cloning, human identity, narcissism, scientific technology

## I. 서론

페미니즘 운동과 작품 활동의 궤적을 함께 하며 젠더와 모성, 부르주아 가족의 의미에 도전을 해왔던 캐릴 처칠(Caryl Churchill)이 2002년에 발표한 『넘버』(*A Number*)는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기한 인간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한다. 1997년 복제양 ‘돌리’(Dolly)가 탄생하자 의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이 이뤄낸 생식 기술을 통해 인간의 복제도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교차했다. 이제 돌리와 같은 복제된 동물뿐 아니라 오락적 상상의 산물이었던 존재들이 현실에서 우리와 마주하고 있다.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사이보그는 우리 생활 속에서 활동하면서 생활의 단순 서비스 기능뿐 아니라 손상된 신체 기능을 복원하거나 증강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인지과학 분야의 발전된 지식과 기술이 복제, 로봇, 사이보그 등에 적용되면 현재의 인간을 개조한 신인류의 탄생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예견한다. 인간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휴머노이드(humanoid)의 사용은 그 미래를 현재 예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관련해 ‘인류세(anthropocene)라 불리는 현재의 위험한 지구 환경을 극복하며 인간종을 지속시킬 임무 수행은 인간이 하게 될까 아니면 개조된 인간 이후의 존재(a post-human being)가 하게 될까? 이들과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이 존재들과 공존이 가능할까? 이들은 인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처칠은 첨단 과학기술이 불러온 이러한 질문들을 일찍이 예견했고 그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

현재 다양한 문학과 예술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포스트휴먼<sup>1</sup>에 대한 이

<sup>1</sup> 포스트휴먼에 대한 학문적 경향은 크게 포스트휴먼-이즘(Posthuman-ism)과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경란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이즘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포스트-휴먼적 존재를 다루는 담론이고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경계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이성중심적, 서구중심적 휴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는”(187) 이론이다. 필자는 처칠의 『넘버』가 후자의 관점이 강하다고 보며 본문에서는 처칠의 텍스트를 이러한 관점에서 논한다. 이경란, 「기술과 학적 포스트휴먼 조건과 추론 소설 -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윌리엄 김슨의 『패턴 인식』,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 포스트휴먼의 무대 2』, 서울: 이화인문과학원, 2017.

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포스트휴먼을 “현재의 인간이 새로운 기술적 수단들에 의지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3) 존재로 정의한다. 그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생각이 인간에 대한 근대의 계몽주의와 휴머니즘 사상을 계승한다고 보았다. 근대의 계몽주의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소질을 계발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현재의 포스트휴머니즘은 그것에 더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까지 동원하여 인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로버트 페페렐(Robert Pepperell)은 포스트휴먼 연구가 ‘휴머니즘 이후’라는 의미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종말”(15)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포스트휴먼을 “생물학과 기술과학의 전반적인 수렴이 일어나 그 둘을 구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준”에 다다를 때 그 수준에서 탄생한 문화적, 기술과학적 존재는 자연발생적이지 아니라 “도구와 장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의 생명의 진화”(271)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포스트휴먼 시대가 시작되면 그들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반대로 인간인 “우리 자신이 있게 된 존재의 조건”(271), 즉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학문적 재성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페페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처칠의 『넘버』는 복제 인간이라는 포스트휴먼을 통해 인간과 인간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한다. 드니스 빌레네브(Denis Villeneuve)의 『블레이드 러너 2049』(*Blade Runner 2049*)나 마이클 베이(Michel Bay) 감독의 『아일랜드』(*The Island*) 등 많은 영화들이 복제 인간을 주제로 다뤘지만 연극 무대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 경우는 드물다. 복제 인간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문제는 기술상 영화만큼 쉽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처칠은 자신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권력과 정체성 규정 관계를 인간 복제의 문제에 투사한다. 『넘버』에 등장하는 복제 인간은 원본 인간과 구별이 되지 않는 외모와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원본 인간보다 더 우수한 공감 능력과 사고력,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감이 있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단순한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들어 낸 인간이 원본 인간보다 더 우수하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더 우월한 인간이 만들어지면 어느 쪽이 진정한 인간으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더구나 포스트휴먼 존재가 계통적으로는 인간종의 일원이면서 그의 생명은 인공적

개입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에 이 혼종적 복합물이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자율성은 인간 본연의 것인가 또는 인공적으로 주입된 새로운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들의 자율성이 인간 본연의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들을 동료인간으로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적으로 주입된 것이라면 ‘창조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자율성을 얼마나 확립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에도 답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칠의 『넘버』를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에 왜 인간의 정체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인간이 만들어 낸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이 작품에서 그 점은 인간 아버지인 솔터(Salter)의 ‘아버지 되기’(being father)와 ‘아버지 역할 하기’(doing father)를 통해 잘 밝혀준다. 작품에 등장하는 친아들과 친아들을 복제한 두 명의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와의 1:1 대화 속에서 각각의 특징을 드러낸다. 생물학적 친아들이든 복제된 아들이든 솔터는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존중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그의 기대를 저버린다. 따라서 솔터가 추구하는 좋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기술과학 사회가 생명창조 과정을 지배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적 판타지임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는 처칠의 또 다른 고민인 새로운 유전학이 가져올 인간 유전자의 자본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1970년대 미카엘 푸코(Michael Foucault)는 우성학과 그것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인간 유전자 집단을 통제하고 은닉하려는 시도가 “유전적 인간 자본 형성의 값비싼 선택을 높이려는 자본주의적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것”(229)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런 개발이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자본 투자로 여기고 최고의 유전적 조합을 만들기 위해 유전과학에 의지”(229)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푸코는 미래 자본주의 정책은 더 이상 물질적 자본이나 노동자의 수와 같은 물리적 투자에 연동되지 않고 인간 자본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형태에 연동된다고 보았다. 복제된 자녀를 돈으로 환산하는 솔터의 모습을 보면 푸코의 우려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도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상품화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그로써 이익을 얻는 선진 자본주의”(81)의 탐욕이자 포스트휴먼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너는 이것을 “생명 그 자체를 기꺼이 거래하는 시장 세력의 기회주의적인 탈-인간중심주의 형태”(81)라고 꼬집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칠의 『넘버』를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를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분석한다.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넘버』가 제기하고 있는 휴머니즘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의 변천과 포스트휴먼에 대한 몇몇 비평가들의 관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의 관점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 로지 브라이도티와 도나 해러웨이(Dona J. Haraway)의 견해를 참고한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솔터와 아들들과의 관계 맺기가 아들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처칠이 관객에게 던지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답변을 그녀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II. 본론

### 2.1 포스트휴먼의 반휴머니즘과 탈인간중심주의

르네상스와 18, 19세기의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 이성, 권리, 주체성, 합리성의 단어들은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의 역량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합리적 진보 개념에 도덕적 능력까지 결합시킨 휴머니즘 담론은 인간종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착을 증명하기 위해 ‘천부인권’이나 ‘권리장전’과 같은 인간 중심의 권리 개념을 만들었다.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래 신에 기반한 인간의 개념과 그것이 누려온 지위에 타격이 가해지긴 했지만 니체의 계보학과 자연법은 인간의 윤리적 책임, 공동체 의식 구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휴머니즘에 대한 불신을 끄지 못했다. 그러나 과시즘,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 출현은 고대 그리스 문화 이후 서구 철학의 중심 사상인 휴머니즘을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선회하게 했다. 인간이 저지른 현대 역사의 참상으로 인해 서구 유럽이 추구해온 휴머니즘은 “세상의 도덕적 보호자요 인간 진화의 동력으로 간주하

는 과대망상”(Braidotti 38)이라고 비판받았다. 휴머니즘 망상은 근대 서구 문명 사상의 전반을 지배하며 여성/남성, 자연/문화, 야만/문명, 동물/인간, 흑인/백인과 같은 이분법을 보편적 개념으로 만들고 만물의 주체로서 인간의 생물학적, 도덕적 능력을 합리적 진보 개념과 결합시켰다. 휴머니즘 교리에 따라 성적,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타자들은 중심에서 배제되고 역사에서 왜곡되거나 지워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토니 데이비스(Tony Davies)의 “모든 휴머니즘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적이었다”(Braidotti 26 재인용)라는 표현은 휴머니즘의 키워드인 ‘인간’ 혹은 ‘인류’가 만들어져 주입된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사회, 역사적으로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이후의 여러 국지전, 현대 과학의 발전, 세계화에 따른 전지구적 경제, 문화, 환경적 폐해와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사회, 문화 이론들은 인간중심의 고유 개념을 과열시키고 있다. 사상적으로 20세기 초부터 파시즘과 공산주의로부터 거부되던 휴머니즘의 이상은 페미니즘과 민권운동을 주도한 1960년대 이후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1970년대는 ‘인간의 죽음’을 선포할 정도로 여러 진영에서 공격을 받았다. 처칠의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된 페미니즘은 서구 유럽의 정신을 지배한 휴머니즘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식민주의와 맥을 함께 한다. 이런 이론들은 “우리의 종과 우리 정치체, 그리고 우리 행성의 다른 거주자들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공통의 참조 단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Braidotti 8).

인문, 사회학에서 추동되어 온 ‘인간/휴먼’ 혹은 ‘인류’에 대한 반휴머니즘 양상은 이제 현실적 필요 때문에 그 용어들이 전제로 삼은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포스트 이론들이 합리적,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주체성에 도전해왔다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포스트휴먼의 출현으로 그 도전을 가속화한다. 생명과학과 인지과학의 발달은 생명체의 성질과 물리적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도화하여 대체 신체기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율적 인지 기능을 장착한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계들이 이제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부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 기계의 결정이 과연 도덕적, 자율적 의사결정인가 그리고 그들의 오류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더해 처칠의 『넴퍼』에서 나타

나듯이 선진 자본주의와 결합한 유전공학이 탄생시킨 포스트휴먼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가 주요 자본임을 파악한 자본주의가 세계화를 통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경제수단으로 전유하여 상업화하게 된다면 인간종의 주체성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인간이 진행시켜 온 이런 포스트휴먼적 문제들에 대해 유력 미디어들조차 해결책으로 휴머니즘적 가치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운동을 요청한다.

20세기의 반휴머니즘 이론들의 업적 중 하나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포스트젠더적 구성물이라는 시각을 확립한 것이다. 해러웨이는 인간을 사이보그로 보편화하면서 “사이보그는 우리의 존재론이며 정치는 여기서 시작된다”(19)고 말한다. 그녀는 사이보그 존재론에서 20세기 후반 과학이 와해시키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경계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 둘째는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유기체와 기계의 경계, 마지막으로 물질과 비물질 사이의 경계이다(23-26). 그녀의 사이보그 존재론은 “경계를 위반하고 융합의 잠재력을 탐색하여 진보정치의 자원을 찾는다”(28). 또한 사이보그 세계는 “사람들이 동물 및 기계와 맺는 친족관계를 비롯해 영원히 부분적인 정체성과 모순적 입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사회적, 신체적 현실 가능성”(29)을 모색한다. 그녀 스스로도 “신성모독”(17)이라 부를 정도로 괴기하게 들리는 이 선언을 브라이도티는 “생태학적 포스트휴머니즘”(67)이라고 명명하며 더 분석적이고 실천가능하게 설명한다. 그것은 “인간-아닌 ‘대지’의 타자들을 포함한 타자들과 자아 사이의 상호연계에 주목하는 확장된 의식”(67)에 의존하며 그 원천은 생태학과 환경운동이다. 이 생태학은 복제, 로봇, 사이보그 등으로 발생한 인간 존재의 위기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이들을 타자화하고 인간을 주체로 상정하는 인식론적 폭력으로 본다. 또한 이들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생명 물질의 다양성과 인간이 아닌 형태들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의 부족”(Braidotti 66)으로 여긴다.

브라이도티가 설명한 생태학적 포스트휴먼 주체들은 다양한 소속의 관계적 주체들이다. 이들은 내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차이를 극복하고 현실을 책임지는 주체다. 해러웨이는 이것을 고도화된 기술 문화에서 “우리 자신이 사이보그, 하이브리드, 모자이크, 키메라임을 깨닫”고 “생물학적 유기체들은 생체 시스템, 다른 기계들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장치”(78)임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브라이도

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연-문화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주체성 이론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모순에 적합한 비판도구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70)하다. 그녀는 종과 물질을 횡단하는 포스트휴먼적 유대를 위한 실천으로 ‘-되기’(being-) 기획을 추진한다. 인간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제국주의를 저항하기 위해서는 “유목민-되기”(72)가 필요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박탈하고 종을 횡단하는 연대의 필요를 위해서는 “동물-되기”(90)가, 선진화된 생명공학기술적 자본주의에 의해 과장된 진화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계-되기”(117)가 필요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체성이란 “복합적인 정치, 역사 층 속에서 퇴적된 ‘아웃 사이더’의 정체성들을 융합하여 합성된 것”(Haraway 71)이고 “확장된 관계적 자아, 모든 요인의 축적된 효과에 의해 생성된 것”(Braidotti 81)이다.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의 관계가 축적되고 융합된 결정체로 “생명 자체의 정치학”(Braidotti 81)의 시작점이다.

과거 페미니스트들은 이원론적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사회를 바꾼 좋은 예를 세웠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명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의 정체성이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가변적인 개념임을 깨닫고 이를 바꾸기 위한 신속한 사회운동을 벌여 사회를 변화시킨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생명 자체의 정치학’ 측면에서 보면 인간/휴먼이란 개념 역시 역사적 구성물이고 사회적 규범일 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신성시될 것이 아니다. 브라이도티를 비롯한 많은 실천주의 학자들이 제안한 ‘-되기’ 기획은 인간과 그 외 생명체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평등주의이자 탈인간중심적 작용이다.<sup>2</sup> 포스트휴먼에 대한 탈인간중심적 탐색은 휴머니즘의 주체성 이론과 지식 생산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고전적 휴머니즘은 그 존재적 종말의 위기를 생명 자체의 역동

<sup>2</sup> 브라이도티가 말한 ‘~되기’ 기획은 그녀만의 창의적 발상이 아니다. 그녀는 이 기획이 들뢰즈(Gilles Deleuze)나 가타리(Felix Guattari)의 철학을 준거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유목민-되기’ 혹은 ‘소수자-되기’라는 포스트휴먼 기획이 “민족에 묶인 기존의 정체성들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기 때문”(73)에 도전이 되지만 주체성의 구조와 이론, 지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을 열어준다 강조한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 욕망과 신념, 비전을 함께하는 “강력한 정서적 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인 ‘-되기’들의 역량을 집단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73)고 주장한다.



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축적시켜 인간이 지구 환경속에서 다른 종과 공생할 방법과 실천으로 전환한다.

과거 페미니스트 극작가로서 처칠은 여성의 타자성, 젠더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연극을 통해 관객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버킹엄셔에 빛나는 빛』(*Light Shining in Buckinghamshire*)을 통해서도 젠더와 이분법적 타자화는 역사적 구성물임을 설명했고, 『클라우드 나인』(*Cloud Nine*)에서는 패러디를 통해 젠더의 허구를 드러내어 전복시켰다. 그녀는 관객의 인식을 바꾸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연극을 활용했다. 21세기에 처칠은 무대 위에 복제 인간을 등장시켜 인간의 주체성과 포스트휴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극 역시 ‘-되기’ 기획을 활용한다. 하지만 그녀는 ‘-되기’를 ‘-역할 하기’로 바꾸어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음 장에서 그 점에 대해 살펴본다.

## 2.2 ‘아버지-되기’ 대 ‘아버지-역할 하기’

가족의 형성과 그 역학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처칠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관심사다. 그녀는 젠더 규율과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해체되는 가족을 그려내며 이상적인 부르주아 가족 개념을 파괴한다. 1972년 『소유자들』(*Owners*)에서부터 자본주의와 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어머니와 모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처칠은 『넘버』를 통해 이례적으로 복제 기술을 통한 남성의 탄생과 아버지-아들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극은 생식과 관련하여 복제의 두 가지 논란을 지적한다. 첫째는 복제 기술의 본질이 남성중심적 세계관이라는 점이다. 작품에 여성의 목소리와 관점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인공수정을 통한 생명탄생 기술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복제는 어머니 없는 미래 가정구성원 탄생을 그린 남성 신화 시나리오다. 이 작품의 미래 신화에 대해 가브리엘 그리핀(Gabriele Griffin)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룬 “새로운 부성애 연구”(12)라고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살터(Salter)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화에 대한 아버지의 기여에 대해 의문”(13)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여성이 배제된 채 탄생한 복제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 정체성 형성에 아버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아버지-아들 관계극이다. 또 다른 논란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 유전적 유산인가, 환경적 산물인가에 관한 논란이다. 이것은 생명체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인간은 유전자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체성 역시 유전자에 내장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뿐 아니라 공동체, 언어와 문화가 교류하는 복합적 조성물인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면밀히 점검해보면 이 두 쟁점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처칠은 두 가지 쟁점을 ‘아버지-되기’(being a father)와 ‘아버지-역할 하기’(doing a father)로 제시한다.

주인공이자 아버지인 솔터에게 ‘아버지-되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에게는 B1(Bernard 1)이라고 하는 친아들이 있고 그를 복제한 B2(Benard 2)와 마이클(Michael Black)이 있다. 그는 B1을 버리면서 B1의 세포를 복제하여 나머지 아들들이 복제되도록 한다. B2가 B1에게 살해당하고 B1마저 자살하자 솔터는 마이클을 찾아가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힌다. 아들들이 죽어버릴 때마다 그는 다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하다. 솔터가 왜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B2에게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죽은 B1을 되살리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2막에서 B1이 진짜 등장하자 그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그는 젊었을 때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친아들 B1을 학대하고 유기했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2살밖에 되지 않은 B1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아빠를 부르는데도 버려두고 나갔으며 심지어는 찬장에 가두기도 했다. 그러다가 B1을 보호시설로 보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B1의 복제를 원하는 과학자들을 만나 그의 세포로 다른 아들들을 복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솔터의 아버지-되기 욕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는 부모가 되는 책임을 받아들이기보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미지에 몰두해 있다. B2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자신과 똑같은 많은 복제인간들이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아 솔터에게 복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냐고 따진다. 하지만 솔터는 “아니, 넌 너야 그건 네가 너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똑같은 너를 원했어 그게 가장 완벽해보였으니까”(Churchill 174)<sup>3</sup>라고 말한다. 이후 B2와의 대

<sup>3</sup> Caryl Churchill, “A Number.” *Caryl Churchill Plays: 4*. London: Nick Hern Books. 2009. 161-206. 이후 본문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기.

화에서 그는 “내가 원하는” 아이라고 2번 더 말함으로 B2 자체를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2장에서 B1이 그를 찾아오자 당황한다. B1은 문 앞에서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솔터를 비난하며 B2가 자신의 복제물임을 아는지 묻는다. 솔터는 마지못해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B1의 계속되는 추궁에 당당히 대응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구차한 변명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솔터:** 나만큼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 예견할 수 없었던 걸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보다 더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날 더 화나게 해 하지만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또 선물이었어 완전히 다른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이를 원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널 다시 원했어 그건 내가 최고의 아이였기 때문이다.

**B1:** 그래도 그건 내가 아니야.

**솔터:** 그래 하지만 똑같은 기본 똑같은 물질 그건 완벽했어 넌 최고로 예쁜 아이라고 모두가 말했어.

**SALTER:** Nobody regrets more than me the completely unforeseen unforeseeable which isn't my fault and does make it more upsetting but what I did did seem at the time the only and also it's a tribute, I could have had a different one, a new child altogether that's what most people but I wanted you again because I thought you were the best.

**B1:** It wasn't me again.

**SALTER:** No but the same basic the same raw materials because they were perfect. You were the most beautiful baby everyone said. (181-2)

그는 B2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B1에게 “내가 너를 원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내가 너를 원했다”는 말은 B1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닮은 아이를 원했던 그의 욕망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질성의 시뮬레이션”(the simulation of sameness)이라 불리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 어떤 사람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Griffin 24). 솔터의 아버지-되기 욕망은 실패한 아버지라는 어두운 과거를 지우고 복제라는 판타지를 통해 좋은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사를 세우려는 나르시시즘적 관점이다.

솔터의 아버지-되기 욕망은 자신에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파멸적이다. 그의 나르시시스적 차원의 욕망은 자기 과시적이고 권위적이어서 그 대상인 아들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B2가 병원에서 자신과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놀란 이유는 자신이 원본(original)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기원이 된 형과 엄마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는 원본인 B1이 4살 때 엄마와 함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솔터의 거짓말을 믿었지만 후에 원본인 형이 자신을 찾아오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이제 “나 자신을 나라고 느낄 수 없어”(188)라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또한 “나하고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무서운 일”(189)이고 B1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말한다. B1에게 솔터라는 아버지는 악몽 그 자체다. 솔터는 폭력적이고 무절제한 현재의 B1을 만든 장본인이다. 어린 시절 어두운 방에서 아빠를 불렀지만 솔터는 고의로 응답하지 않아 외로움과 소외에 익숙하게 되었다. 보호시설로 보내진 B1은 그곳에서 학대와 고문을 받았고 이후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막에서 솔터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거칠고 도전적인 태도는 그토록 고된 인생을 살게 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게다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동생은 아버지와 안락하게 35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질투까지 한다. 결국 그는 그 모든 분노와 질투를 B2에게 쏟아내어 그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다. 두 아들이 죽자 그는 자신의 아버지-되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른 복제 아들 마이클을 찾아간다. 아버지가 되려는 솔터의 자기 심취적 욕망은 다른 사람들, 특히 아들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불러오고 결과도 비극적이다.

솔터의 아버지-되기의 문제점을 통해 처칠은 인간의 정체성이 유전의 결과인지 환경의 결과인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리고 B1과 B2에게 솔터는 아버지-되기가 아니라 아버지-역할 하기를 해야 했음을 암시한다. 2막에서 B1이 솔터를 찾아오자 그는 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다. B1은 2막 내내 자신의 눈을 보라고 솔터에게 다그친다. 솔터는 B1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고 거의 “아니다”라는 말로 일관한다. 솔터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B1의 현재를 통해 자신의 못나고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현재의 아들처럼 무책임하고 난폭하게 살았다. 그의 무절제한 성향이 아들 B1에게 유전된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불편함이다. 그가 B1을 시설로 보낸 후 B2를 얻자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고 난 그렇게 됐어 난 네게는 잘했다”(193) 라고 말하자 B2가 “아빠는 그렇게 했어”(193)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B2에게는 아버지-되기와 더불어 아버지-역할 하기를 어느 정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B1이 아버지에게 적개심과 분노만을 가지고 있던 데 반해 B2는 아버지와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솔터의 아버지-역할 하기는 시늉이었을 뿐 전체적으로 거짓과 허구였다. B2와의 대화를 들어보면 솔터의 대답은 B1에게 하듯이 단답형이거나 진실을 회피하며 얼버무리는 모양새다. 진실을 알기 위해 B2가 심문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솔터는 그것을 꿰어 맞추는 식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곳곳에서 시도한다.

B2: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솔터: 다른 아들, 응, 첫째였어

B2: 누구였지? 죽었구나

솔터: 죽었어, 그래

B2: 그 아들을 대체하고 싶었고

솔터: 그랬어

B2: Some time before I was borne there was

SALTER: another son, yes, a first

B2: Who what, who died

SALTER: who died, yes

B2: and you wanted to replace him

SALTER: I wanted (173)

또한 그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B2가 솔터의 말에서 단서를 찾아 다그치면 마치 못해 그것을 인정한다. 자신이 왜 원본 아들이 아닌지 알고 싶은 B2에게 솔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B2:** 제발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 해도 난 괜찮아. 아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나, 혹은 엄마 쪽,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을 수도 있고 아빠가 뭘했는지 난 몰라 내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솔터:** 좋아, 그것이 그런 거야.

**B2:** 그렇군.

**B2:** so please if you're not my father that's fine. If you couldn't have children or my mother, and you did in vitro or I don't know what you did I really think you should tell me.

**SALTER:** Yes, that's what it was.

**B2:** That's all right. (172)

솔터는 심문을 당할 때처럼 모호하고 불완전하게 말하여 진실을 통제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먹히지 않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말하다 멈추기를 반복한다. 솔터의 대사가 가진 불완전성은 그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될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럴듯한 답을 줌으로써 아들의 의심과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만 급급함을 알 수 있다.

진실을 회피하려는 솔터의 아버지-되기는 아버지라는 권력 추구이자 아버지-중심적 사고방식이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누리며 존경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B1을 버린 그는 B2에게도 출생과 형에 대한 진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B2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는 B2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아버지에게는 실망과 분노를, 형으로 비유되는 사회에는 두려움과 소외감을 갖게 한다. 입양, 인공수정, 복제와 같은 생식수단은 근본적으로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필요가 우선시되는 부모-되기 중심의 절차이다. 실제로 2007년 정자기증으로 탄생한 아이들과 입양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출생 이야기를 비밀로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소외감과 분노를 가져오며 특히 이 극의 경우처럼 성인이 되었을 때 출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더욱 그러하다(Griffin 16). 이 사실은 현재 생식과 출생의 과정이 아이 중심이 아니라 부모-되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식수단의 사용은 가장이 된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

는 아버지의-역할 하기에 초점이 바뀌어야 함을 지적한다.

솔터가 만난 세 번째 아들 마이클은 아버지-역할 하기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개인 정체성 형성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논쟁에 대한 처칠의 답변도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누리하고자 하는 솔터와 달리 그는 가족들에게 존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이클은 “같이 살면서 늘 보고 있으니 사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200)라고 말함으로써 과거 솔터의 아버지-되기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해 뜨는 아침에 공원으로 아이들을 데려간다”(200)는 말로 가족에 대한 아버지 역할-하기를 설명한다. 아버지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 중심으로 다른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왔던 솔터와는 달리 마이클은 주변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물을 본다. 솔터는 자신의 사진을 걸어 놓고 존경을 강요하는 독재적 가장을 염원하지만 마이클은 가족의 일원으로 녹아들어 있기에 존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이클의 이러한 생각은 솔터와의 유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버지 솔터와 함께 하는 성장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클에게 아버지-되기는 아버지-역할 하기와 같은 것이다.

마이클이 솔터와의 유전적 유대감을 낮설어 함으로써 마이클에 대한 솔터의 아버지-되기도 낮설어진다. 마이클은 이전 두 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마이클은 B1이 아버지로 인해 B2에게 느끼는 경쟁과 질투도, B2가 가졌던 “독특함”(169)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특히 솔터로부터 그가 복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질문받자 “재밌었다”(204)고 대답한다. 그 사실에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인생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마이클의 대답은 아버지로서의 솔터의 존재를 공허하게 한다. 마이클은 자신을 만든 “미친 노교수”(205)가 자신을 보며 느낄 스틸을 생각하면 즐겁다고 말함으로써 미친 노교수만큼 아버지 솔터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낸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칩팬지나 상추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소속감을 느낀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가 되기 위해 찾아 온 솔터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혈연관계보다 자신과 비슷한 존재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소속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마이클은 진정한 포스트휴먼이다. 그는 솔터와 유전적 유사성이 아니라 칩팬지, 상추와 같이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통해 공동체감을 느낀다. 포스트휴먼은 선천적 유전자보다 더 넓은 세계의 유전자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

다. 솔터가 아버지 없는 현재가 행복하냐고 묻자 마이클은 “미안하지만 그래요”(206)라고 대답한다. 이는 인간의 권위적 부모-되기, 혹은 주인-되기에 종말을 고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알린다.

### 2.3 자본주의 생명과학과 ‘아버지-되기’

『넘버』에는 인간복제를 이뤄낸 과학기술의 의도와 솔터의 아버지-되기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득과 관련이 있음을 고발한다. 현 자본주의의 과학기술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상품화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그로써 이익을 얻는다”(Braidotti 81).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엄청난 자본이 생명물질이 가진 정보를 얻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데 사용된다. 인공수정 분야에서만도 2012년 93억 달러 규모였던 출산 서비스가 2020년에는 226억 달러로 성장했다(Luckhurst 242). 이 분야는 최상의 유전자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에서부터 부모의 취향에 따라 아이의 성별을 선택하는 “쇼핑”(Luckhurst 242)까지 갖추고 있다. 물론 이 “쇼핑”도 그것을 누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것이다. 인간의 부모-되기 욕망과 과학기술은 수요공급 조건을 잘 갖추고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맞춤형 생명창조를 시도한다. 자본주의의 기술은 인간의 기본 욕망까지 상품화하며 그럴 가치가 없는 상품은 가차 없이 폐기한다.

솔터가 복제 아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은 생명창조 능력을 이용해 창조주로서의 지위와 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기술 자본주의의 태도를 은유한다. 2막에서 B1이 자신 몸의 일부로 다른 아이들을 만드는 실험 과정을 무감각하게 나열하자 솔터는 이에 맞장구를 친다. 그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B1의 세포로 새 존재를 만들게 한 일이 “오직 유일하게 멋진 일”(178)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들을 “없애버리는 것”(178)임을 모른다. 과학자들은 B1의 신체를 사용해 “천식증상이 나타나게”(180)하는 실험도 했고 아마도 그의 세포를 개에게 이식하는 실험도 한 듯하다. 솔터는 그 “엄청난 결과물”(179)을 얻기 위해 아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허용했고 복제 아들을 얻기 위해



“모든 것”(179) 즉 많은 돈을 치렀다. 친아들과 엄청난 돈을 희생한 대가로 B2를 얻은 솔터는 과학자들이 자기 몰래 많은 B2를 복제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과학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한다.

솔터: 뭐? 그게 돈이냐고?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고? 돈으로 계산해 봐

B2: 이걸 순수하게

솔터: 맞아

B2: 한 사람이 1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솔터: 10만이라면

[ . . . . ]

솔터: 넌 최소 100만은 받아야 해. 내 생각엔 한 사람당 100만의 반은 더 된다고 봐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야 네 유일성을 훼손하고, 네 정체성을 약화시켰으니까, 우리 500만에서 시작해야 할거다

SALTER: What? is it money? is it something you can put a figure on? put a figure on it.

B2: This is purely

SALTER: yes

B2: suppose each person was worth ten thousand pounds

SALTER: a hundred

[ . . . . ]

SALTER: a million is the least you should take, I think it's more like half a million each person because what they've done they damaged your uniqueness, weakened your identity, so we're looking at five million for a start. (168-9)

솔터의 위 대사는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더 많은 B2를 만든 것이 B2가 갖는 유일성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솔터는 자신이 아들의 생명과 유일성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들의 유일성과 그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한 사람은 솔터였다.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소유권에 대한 집

작이 가져오는 생명의 물신화와 생명 경시 태도다. 이 작품에서는 솔터의 아버지-되기를 그것에 대한 은유로 삼았다. 솔터의 인간생명에 대한 태도는 그가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냉담하고 이기적임이 분명해진다. B1이 B2를 살해했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난 아직도 우리가 이 일에서 한몫을 챙겨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어. 변호사를 살 거야”(197)라고 말함으로써 소송을 통해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지를 다진다. 또한 “넌 그것들처럼 연속적으로 태어난 애는 아니었다, 다른 애들을 쓸어 치워 버리면 그럼 유일하게 너만 남게 되고 그럼 처음 시작할 때와 같게 돼”(198)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B1의 다른 복제 형제들, 즉 그의 아들들을 죽일 계획까지 세운다. 그의 탐욕적 계획은 B1이 자살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솔터에게 생명은 “실험실의 배양 접시의 테스트 튜브”(177)에서 길러지다 죽은 세포들에 불과하며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전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품과 같다. 솔터의 아들들은 “솔터와 복제를 설계한 불분명하게 정의된 과학자와 의사에 의해 조작되는 사물로 탈인간화”(Salvilonis 247) 되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

인간의 탈인간화는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다. 과학에서 피실험체를 명명하는데 사용된 번호가 인간에게 붙여졌다는 사실이 한 가지 예다. 솔터의 아들들은 B1, B2로 불린다. 솔터와 아들들은 대화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름 없이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가치도, 주체성도 부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마이클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탈인간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B2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가 과학적 산물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솔터가 B1이 죽은 사실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는 기계처럼 큰 공감이나 위로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가 솔터를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이클:** 우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99퍼센트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어요. 우린 침팬지와 90퍼센트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고요. 우린 상추와 30퍼센트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어요. 이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될까요? 전 상추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MICHAEL:** We've got ninety-nine percent the same genes as any other person. We've got ninety percent the same as a chimpanzee. We've got thirty percent the same as a lettuce. Does that cheer you up at all? I love about the lettuce. It makes me feel I belong. (205)

마이클의 말은 인간이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공감이나 위로가 아니다. 기술중심 세계의 산물답게 그는 수치화된 자료로 로봇처럼 대답한다. 솔터가 마이클의 특별한 점에 대해 듣고 싶어 말을 계속 걸어도 그는 땅에 구멍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 구멍에 사람을 묻는 방법 혹은 정치, 아내 이야기를 하며 솔터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마이클도 탈인간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과학이 주도하는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마이클과 같은 존재들은 인간에게 함께 해야 하는 불편한 이웃일 수 있다. 마이클은 의문을 품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낸 과학의 가능성을 은유하고 있다. 마이클은 새로운 유전학의 불안한 일면이면서 생명과학 기술이 추구해야 할 정치적 방향을 고민하도록 촉구하는 존재이다. 그는 주변과의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포스트휴먼이기에 그의 탈인간적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며 만들어가는 세계를 파멸적으로 만들 수 있다. 솔터의 아버지-되기가 권위적 욕망 때문에 파멸적이었다면 자본주의의 욕망이 쏟아부은 획기적인 복제 성공도 프랑켄슈타인의 신화로 끝나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작품에서 처칠은 성공적인 과학의 산물과 함께 살아야 할 미래를 마냥 환영만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 III. 결론

많은 예술가들처럼 처칠은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과 같은 과학과 기술의 조합이 21세기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다. 그녀는 생애 중에 유전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1953년 유전자의 이중 나선구조의 발견이나 1983년의 질병의 첫 유전자 지도 완성, 2002년 복제양 돌리와 인간

계놈의 순서를 배열하고 지도화하는 국제 연구 협업 등이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올 역설적 변화에 민감했던 그녀는 1971년부터 라디오 극인 『산소가 부족해요』(*Not Not Not Not Not Enough Oxygen*)에서 과학기술은 고도화되고 인간적 접촉은 최소화된 사회를 그려냈다. 처칠은 2000년 이후 과학적 디스토피아 세계 속에 인간 존재를 재구성하는 『저 먼 곳』(*Far Away*, 2000), 『넘버』(*A Number*, 2002),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너무 취했나요?』(*Drunk Enough to Say I Love You?*, 2006), 『사랑과 정보』(*Love and Information*, 2012) 등을 발표한다. 이 작품들은 “인간 존재와 정체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부족으로 정의되는 세계”(Muhi 682)를 다루며 미래에는 인간/휴먼에 대한 의미가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알린다.

처칠은 기술과학으로 인해 인간 중심의 사고와 판단기준이 변화될 미래를 복제인간을 통해 미리보기를 제공한다. 처칠은 인공수정을 통해 생명탄생이 가능한 시대를 넘어 인간이 신과 같이 생명을 창조하는 시대가 되면 인공 생명체에 대해 인간은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인간을 모든 존재의 주체로 상정한다. 인간이 그러한 주체로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가족의 주체로서 솔터가 합당한지와 병치된다. 가장으로서의 솔터의 주체성을 해체하고 전복하는 방식은 처칠이 클라우드 나인에서 사회규범으로서의 젠더를 전복하고 해체한 전력과 맥을 같이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인간의 주체성을 해체하는 도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겨난 포스트휴먼들이 우리의 일부라는 점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해러웨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몸들 즉 우리 자신인 몸들의 권력과 정체성의 지도”(83)이다. 따라서 인간의 주체성의 사멸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의 경계를 허무는 재구성 작업이 시급하다. 처칠은 그것을 ‘아버지-역할 하기’로 제시한다.

처칠은 포스트휴먼과 관련하여 선진 자본주의 내의 과학은 인간의 삶을 바꿀 양날의 검임을 강조한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시장 세력들은 개인의 유전정보나 신경 정보를 데이터화해 자본으로 삼는다. 기술의 자본화는 기술의 사용자들이 사회를 성장시킬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준다. B2와 마이클의 유전정보를

소유한 “미친 과학자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B1의 대사를 통해 마이클과 B2는 과학자들이 인간에게 행하는 테러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인간실험은 이미 20세기 초 양차 세계대전에서 행해진 범죄다. 그 실험으로 과학자들은 애국자로 추앙되었지만 나중에는 인류에 대한 사악한 테러리스트임이 증명되었다. 생명체의 다양성과 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과학, 브레이크 없는 기술은 많은 철학자와 문학가들의 비판적 상상력을 현실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모든 과학자들에게도 “과학자-역할 하기”가 필요하다.

처칠은 이 작품에서 인간복제를 통한 포스트휴먼 시대를 제시하며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재고한다. 20년 전 처칠이 제시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존 사회가 인간에게 제시한 삶의 유형을 바꿀 준비가 필요하다. 그녀의 드라마는 관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답을 찾아 행동하는 힘을 요구한다. 현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 Works Cited

- Bostrom, Nick. *Super 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First Edition*, Oxford: Oxford UP, 2014. Print.
- Briadotti, Rosi. *Posthuman*. Manhattan: John Wiley & Son Inc, 2013. Print.
- Churchill, Caryl. “A Number.” *Caryl Churchill Plays: 4*. London: Nick Hern Books, 2009. 161-206. Print.
- Faucault, Michael. *The Birth of Biopolitics*, Trans. Graham Burchell,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0. Print.
- Griffin, Gabrielle. “More Than a Number: Reproductive Technologies, Cloning and the Problematic of Fatherhood in Caryl Churchill’s *A Number*.” *Journal of the Spanish Association of Anglo-American Studies* 34.2. (2012): 11-31. Print.
- Harraway, Dona. *Manifestly Harraway*. Minnesota: Minnesota UP, 2016. Print.
- Kyengran, Lee. “The Conditions of Techno-scientific Post-humans and Mystery Novels - *Don't Let Me Go* by Gazo Isiguro and *Pattern Recognition* By William Gipson.” *Divided Body and Text - The Stage of Post-human 2*, Seoul: Iwha Academic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2017. Print.

- [이경란. 「기술과학적 포스트휴먼 조건과 추론 소설 -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윌리엄 김슨의 『패턴 인식』,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 포스트휴먼의 무대 2』, 서울: 이화인문과학원, 2017.]
- Luckhurst, Mary. “The New Genetics, Genocide and Caryl Churchill.” *In Twenty-First Century Drama: What Happens Now*, Eds. Sian Adiseshilah and Louise LePag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239-56. Print.
- Muhi, Maysoun Taher. ““They’ve Damaged Your Uniqueness”: Technology as a Source of Dystopia in Caryl Churchill’s *A Number*.” *Journal of Education College Wasit University* 33.1. (2019): 677-92. Print.
- Papperel, Robert. *The Condition of Posthumans: Consciousness Beyond the Brain*. Bristol: Intellect, 2009. Print.
- Savilonis, Margaret. “She was Always Sad: Remembering Mother in Caryl Churchill’s *Not Enough Oxygen* and *A Number*.” *Theatre History Studies* 35 (2016): 233-53. Print.

우승정 (조선대학교 / 교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본관 남쪽 현관 7176-4

이메일: woosj20@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3. 09. 30. / 심사완료일: 2023. 11. 05. / 게재확정일: 2023. 11. 15.